

# 부파불교의 선정론

- 『청정도론』과 『구사론』을 중심으로 -

김 재성(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 I. 머리말

초기불교의 선정론은 다른 교설과 함께 부파불교의 전통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었다. 본고에서는 『청정도론』을 중심으로 하여 남방 상좌불교의 선정론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아비달마구사론』을 중심으로 한 북방 설일체유부의 선정론과 비교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대표적인 부파불교의 선정론의 특징이 분명히 들어날 것이며, 부파불교에서 초기불교의 선정론이 어떻게 계승되고 전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예비적 고찰

### 1. 기존의 연구성과

본 연구는 필자가 발표해온 인도불교의 수행론에 대한 일련의 연구 성과의 하나이다. 필자는 1994년도에 동경대학 대학원에 제출한 석사논문 「『清淨道論』における智-念と定との關係を中心として-」<sup>1)</sup>과 「『清淨道論』に

における刹那定と近行定 - SamathayānaとVipassanāyāna」<sup>2)</sup>에서 사마타 수행과 위빠사나 수행이 서로 중요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四界差別について-南北兩阿毘達磨の修行道における位置づけ-」<sup>3)</sup>에서는 순수 위빠사나 수행(純觀)에서 사용되는 수행법의 예로써 계차별(界差別, dhātuvavathāna)을 들어 남부전 아비달마에서의 전개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순관(純觀, suddha-vipassanā)에 대하여- 남방상좌불교 수행론의 일고찰 -」<sup>4)</sup>에서는 초기불전에서 등장하는 지혜에 의해 해탈한(慧解脫) 아라한 가운데 팔리 주석문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용어인 순관행자(純觀行者)가 있음을 초기불전 및 상좌불교의 주석서를 통해서 밝혀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오정심관(五停心觀)에 대한 고찰 - 인도불교의 맥락에서 -」<sup>5)</sup>은 인도불교 전통의 오정심관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본고는 부파불교 가운데 남방상좌불교와 북방설일체유부의 선정론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본 것이다.

이외 기존의 연구 성과 가운데 禪定에 관한 것으로는 雲井昭善[1976] [1980]<sup>6)</sup>, 櫻部建[1985]<sup>7)</sup>, 藤田宏達[1972]<sup>8)</sup>, 吉本信行[1969]<sup>9)</sup>,

1) 1994년 동경대학 대학원에 제출한 석사논문은 학계에 공표된 것이 아니기에 본 논문을 통해서 공표하지 않은 일부 내용을 정리 발표한다.

2) 金宰晟[1995] 「『清淨道論』における刹那定と近行定 - SamathayānaとVipassanāyānaの接點-」. 『インド哲學佛教學研究』 3, 東京大學文學部インド哲學佛教學研究室, 1995, 3-16쪽. 본 논문도 필자의 석사논문의 일부를 심화 연구한 성과물이다.

3) 金宰晟[1998] 「四界差別について- 南北兩阿毘達磨の修行道における位置づけ-」 『韓國佛教學 Seminar』 7, 東京: 韓國留學生印度學佛教學研究會, 36-50쪽.

4) 김재성[2002] 「순관(純觀, suddha-vipassana)에 대하여」 『불교학연구』 4, 불교학연구회, 255-282쪽.

5) 「오정심관(五停心觀)에 대한 고찰 - 인도불교의 맥락에서 -」 한국선학회 35차 학술발표회(2005년 4월 14일) 발표 논문.

6) 雲井昭善[1976] 「禪定と三昧 仏教とヨーガ派との關わり」 『仏教學セミナー』 23, 大谷大學佛教學會, 1-23쪽. [1980] 「原始仏教におけるcittaの構造」 『仏教學』 9・1

Bronkhost[1986]<sup>10)</sup>, Cousins[1973]<sup>11)</sup>, Griffiths [1981] [1983] [1986]<sup>12)</sup>, Schmithausen[1981]<sup>13)</sup>, Vetter[1988]<sup>14)</sup> 등이 있으며, 남방상좌불교 및 아비달마불교의 수행도에 대한 연구로는田中教照[1976a] [1976b] [1982] [1986] [1987a][1987b]<sup>15)</sup>, 早島鏡正[1964]<sup>16)</sup>, 増永靈鳳[1958]<sup>17)</sup>, 森章司

0, 25-51쪽.

- 7) 櫻部建[1985] 「無相心三昧について」 『壬生台舜博士頌壽記念：仏教の歴史と思想』東京：大藏出版, 47-56쪽.
- 8) 藤田宏達[1972] 「原始仏教における禪定思想」 『仏教思想論叢』東京：山喜房仏書林, 297-315쪽.
- 9) 吉本信行[1969] 「六隨念の成立過程」 『印度學仏教學研究』18-1, 177-180쪽.
- 10) Bronkhorst, J. [1986] *The Two Traditions of Meditation in Ancient India*, Stuttgart, Steiner-Verlag-Wiesbaden-GmbH.
- 11) Cousins, L. S. [1973] 'Buddhist Jhāna: It's Nature and Attainment According To The Pāli Sources', *Religion* 3, 115-131쪽.
- 12) Griffiths, Paul [1981] 'Concentration or Insight: The Problematic of Theravāda Buddhist Meditation Theor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49, 605-24쪽. [1983] *Indian Buddhist Meditation Theory: History, Development and Systematization*,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86] *On Being Mindless: Buddhist Meditation and the Mind-Body Problem*, La Salle, Open Court.
- 13) Schmithausen, L. [1981] 'On Some Aspects of Descriptions or Theories of "Liberating insight" and "Enlightenment" in Early Buddhism', *Studien zum Jainismus und Buddhismus*, Wiesbaden, Steiner-Verlag-Wiesbaden-GmbH, 199-250쪽.
- 14) Vetter, T. [1988] *The Ideas and Meditative Practices of Early Buddhism*, Leiden, E. J. Brill.
- 15) 田中教照 [1976a] 「修行論より見た阿毘達磨論書の新古について- 『雜阿毘曇心論』を中心に」, 『仏教研究』5, 浜松, 41-78쪽. [1976b] 「南北兩アビダルマの修行道論 - 『俱舍論』と『清淨道論』について」 『宗教研究』229, 東京, 21-42쪽. [1982] 「初期アビダルマ論書における四念處觀」 『仏教教理の研究』東京：春秋社, 195-215쪽. [1986] 「有部の修行道論と七覺支」 『仏教學』19, 東京：仏教思想學會, 33-48쪽. [1987a] 「部派仏教における智の展開 - パーリ仏教の修行道との關聯」 『インド學仏教學論集』東京：春秋社, 327-342쪽. [1987b] 「『法蘊足論』における修行道論」 『仏教學』23, 東京：仏教思想學會, 1-21쪽. [1993] 「初期仏教の修行道論」 東京：山喜房仏書林.

[1979a][1979b]<sup>18)</sup>, 水野弘元[1964] [1965]<sup>19)</sup> 임승택[2004]<sup>20)</sup> 등이 있다. 이 가운데 『淸淨道論』의 수행도에 관한 연구는 田中教照[1976b][1987a], 增永靈鳳[1958], 森章司[1979a][1979b] 등이 있다.

## 2. 초기불교의 선정

초기불교에서 선정을 의미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선정을 의미하는 용어<sup>21)</sup>에는 禪(jhāna, dhyāna), 定 또는 三昧(samādhi), 等至(samāpatti), 止(samatha), 瑜伽(yoga), 心(citta, adhicitta), 四無量心, 수습(bhāvanā), 해탈(vimokkha, vimokha), 四念處, 十隨念, 다양한 想(sañña)<sup>22)</sup>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선정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용어는 jhāna와 samādhi 그리고 samāpatti, samatha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경전에 보이는 선정을 의미하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선(禪)과 삼매(三昧)

- 
- 16) 早島鏡正 [1964] 『初期仏教の社會生活』東京：岩波書店.  
 17) 增永靈鳳 [1958] 「四十業處について」 『日本仏教學會年報』 23, 227-242쪽.  
 18) 森章司 [1979a] 「部派仏教の修行道論」 『日本仏教學會年報』 45, 19-37쪽. [1979b] 「南方上座部の行道論」 『東洋學論叢 東洋大學文學部紀要』 32, 仏教學科中國哲學文學科篇IV, 71-124쪽.  
 19) 水野弘元[1964] 『パーリ仏教を中心とした仏教の心識論』東京：山喜房仏書林(1978改訂版), 919-940쪽. [1965] 「原始仏教および部派仏教における般若について」 『駒澤大學仏教學部研究紀要』 23, 13-43쪽.  
 20) 임승택 [2004] 『위빠사나 수행관 연구- 때때삼비다막가의 들숨·날숨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 경서원.  
 21) 초기불교 선정에 대한 정리는 藤田宏達[1972] 「原始仏教における禪定思想」을 참고하였다.  
 22) 선정 수행법으로서의 상(想)에 연구는 김재성[2005] 「오정심관(五停心觀)에 대한 고찰 - 인도불교의 맥락에서 -」 참조.

선(禪 *jhāna*, *dhyāna*)과 정(定, 三昧 *samādhi*)은 어원은 다르지만 초기경전에서 이 양자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특별히 구별되지 않는다. 한역의 선정(禪定)에 해당하는 *jhāna-samādhi*라는 합성어는 초기불전에는 없지만, 선을 닦는 자인 *jhāyin*과 마음이 집중된 자인 *samāhita*가 동의어로 사용되는 예는 법구경<sup>23</sup>)이나 숫타니파타<sup>24</sup>) 등의 운문경전에서 보인다. 그리고 *jhāyin*의 경우는 4선과 4무색정에 사용되는 용례도 있다.<sup>25</sup>)

*jhāna*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선정설은 사선(四禪 *cattāri jhānāni*)인데 이 사선은 *samādhi*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정정(正定 *samāsamādhi*)<sup>26</sup>), 정근(定根 *samādhindriya*)<sup>27</sup>), 정력(定力 *samādhibala*)<sup>28</sup>)의 내용이 된다.

사선(四禪)의 제2선은 정에서 생긴(*samādhija*) 기쁨[喜]과 행복[樂]<sup>29</sup>)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정(定)은 제2선 바로 앞에 제시된 초선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선을 이루면 그 마음이 「정에 들었다」(*samāhita*)<sup>30</sup>)라고 하는

23) *yo ca vassasataṃ jīve dussīlo asamāhito, ekāhaṃ jīvitaṃ seyyo sīlavantassa jhāyino. yo ca vassasataṃ jīve duppañño asamāhito, ekāhaṃ jīvitaṃ seyyo paññāvantassa jhāyino. Dhṃ 110-111계.*

24) *paññābalaṃ sīlavatūpapaṇṇaṃ, samāhitaṃ jhānarataṃ satīmaṃ, saṅgā pamuttaṃ akhilaṃ anāsavaṃ, taṃ vāpi dhīra muniraṃ vedayanti. Sn 212계.*

25) *iti kho bhikkhave yāvataṃ saññāsamāpattiṃ tāvatā aññāpaṭivedho yāni ca kho imāni bhikkhave āyatanāni evasaññānāsaññāyatanasamāpattiyā ca saññāvedayitanirodho ca jhāyī hete bhikkhave bhikkhūhi samāpattikusalehi samāpattivuttāhanakusalehi samāpajjivā vuṭṭhahitvā samakkhātābbāni ti vadāmi ti AN iv, 426쪽, 9-14행. 이 부분은 4색계선과 4무색계선의 각 선정을 의지해서 번뇌의 소멸(漏盡)을 이룰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경전의 마지막 부분이다. 4색계선 4무색계선을 닦는 자를 *jhāyin*이라고 부르고 있다. *jhāyin*에 무색계선까지 포함됨을 지적해 준 본 고의 논평자 임승택 박사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26) DN ii, 313쪽, MN iii, 252쪽, SN v, 10쪽, 『大正藏』 1, 736b.

27) SN v, 196쪽, 198쪽. 『大正藏』 2, 182bc, 183b, 1184a.

28) AN iii, 11-12쪽, 『大正藏』 2, 185a.

29) DN i, 74쪽.

30) DN i, 76쪽.

예에서도 jhāna와 samādhi의 영역은 구별하기 어려워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세 가지 삼매

samādhi의 경우, jhāna보다 폭 넓게 사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두 종류의 세 가지 삼매[三三昧]이다. 먼저 유심유사(有尋有伺 savitakko savi cāro 향하는 생각과 머무는 생각<sup>31)</sup>이 있는) 삼매, 무심유사(無尋唯伺 avitak ko vicāramatta 향하는 생각이 없고, 머무는 생각만 있는) 삼매, 무심무사(無尋無伺 avitakko avicāro 향하는 생각도 없고, 머무는 생각도 없는) 삼매의 세 가지 삼매<sup>32)</sup>가 있다. 이 세 가지 삼매는 초선에서 제2선으로 나아갈 때 거치는 단계를 설명하는 삼매이지만, 초기 경전에서 자세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세 가지 삼매는 공(空, suññato) 삼매, 무상(無相 animitto)삼매, 무원(無願 appaṇihito) 삼매<sup>33)</sup>이다.

## 3) 등지 samāpatti

31) 尋 vitakka과 伺 vicāror를 각각 ‘향하는 생각’과 ‘머무는 생각’으로 번역하였다. 이 번역은 2004년도 경전연구소의 번역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채택한 번역어임을 밝혀둔다. 당시 번역 논의에는 김형준, 백도수, 정준영, 임승택, 강성용, 이미령, 전체린 등이 참가 하였다.

32) tayo samādhī. savitakko savicāro samādhī, avitakko vicāramatto samādhī, avitakko avicāro samādhī DN iii, 219쪽.18-19행 = 274쪽.25-26행, MN iii, 162쪽.14-16행, AN iv, 300쪽.4-7행. SN iv, 360쪽.12-14행.

vitakka, vicāra에 대한 연구는 Cousins[1992] *Vitakka/vitarka and Vicāra : Stages of samādhī in Buddhism and Yoga*, (*Indo-Iranian Journal* 35, pp.137-157)과 渡辺文麿 「Vikappa, Vitakka, Vicāra - ノペーリ語資料を中心に - 」(『佛敎と異宗敎』 京都: 平樂寺書店, 1985, 173-185쪽, 특히 184-186쪽)참조

33) tayo samādhī. suññato samādhī, animitto samādhī, appaṇihito samādhī DN iii, 219쪽.21-22행.

jhāna와 samādhi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용어로 samāpatti(等至)가 있다. 이 용어는 「도달」의 의미로 선정의 경지에 도달한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정립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용어는 주로 사무색정과 멸진정에 사용되지만, 사선을 포함해서 이른바 9가지의 점차적인 경지(nava anupubbavīhāra-samāpattiya 九次第定)<sup>34)</sup>라고 불린다.

#### 4) 사마타 samatha

samatha의 경우는 불교 이전에는 용례가 없어, 초기불교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이다. 초기경전에서 samatha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이지 않지만, 선정을 의미하는 중요한 용어의 하나이다. 특히 止觀 즉 samatha-vipassanā로 사용되는 예가 많다.<sup>35)</sup> 그 외에도 마음의 고요(cetosamatha) 또는 내적인 마음의 고요(ajjhataṃ cetosamatha)로 사용된 경우도 많다.<sup>36)</sup> 想受[지각과 느낌]가 소멸된 경지[想受滅定]를 위해서 지와 관이 가장 유익하다는 경전의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사마타는 4선은 물론 4무색계정까지 내포함을 알 수 있다<sup>37)</sup>. 사마타가 열반의 동의어로 사용된 예로 모든 행의 소멸[諸行寂止]을 의미하는 sabbasaṅkhārasamatha가 있다.<sup>38)</sup> 이러한 예에서 보면 선정을

34) SN ii, 216쪽, 222쪽; AN iv, 410-414쪽, 448쪽. nava anupubbavīhāra의 경우도 내용은 동일하다. DN iii, 265쪽, 290쪽. AN iv, 410쪽.

35) 藤田宏達[1972] 「原始仏教における禪定思想」 『仏教思想論叢』東京：山喜房叢書林, 300쪽. MN iii, 289쪽; SN v, 52쪽; AN i, 61쪽, ii, 157쪽, 247쪽; v, 99쪽 등.

36) AN ii, 15쪽.10행, AN ii, 92쪽ff, iii, 86쪽ff, 116쪽ff, iv, 360쪽ff, v, 99쪽ff; MN i, 33, 35, 213, 216쪽; It 39, Th 16계, 89계, 96계, 135계.

37) saññāvedayitanirodhasamāpattiyaṃ pana bhante kati dhammā bahūpakārā ti, addhā kho tvam gahapati yam pathamam pucchitabbaṃ tam pacchā pucchasi api ca tyāhaṃ vyākariṣṣāmi. saññāvedayitanirodhasamāpattiyaṃ kho gahapati dve dhammā bahūpakārā samatho ca vipassanā cā ti. SN iv, 295.25-30. 다양한 사마타의 예에 대해서는 임승택 [2001] 「초기불교의 경전에 나타난 사마타와 위빠사나」, 『인도철학』 11-1, 인도철학회, 217쪽 각주39 참조

의미하는 용어 가운데 사마타가 가장 넓은 의미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 5) 정정(正定)의 내용인 사선(四禪)

팔정도의 바른 삼매[sammā-samādhi 正定]의 내용은 4선정(四禪定)으로 제시되고 있다. 먼저 삼매에 대한 정의는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心一境性], 이것이 마음집중[三昧]이다.’라고 한다.<sup>39)</sup>

초선(初禪)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첫 번째 마음집중(初禪)은 모든 감각적인 욕망을 떨어버리고, 모든 좋지 않은 법들[不善法]을 떨쳐 버리고 (마음집중의 대상에) 향하는 생각[vittaka 尋]과 머무는 생각[vicāra 伺]이 있고, (감각적인 욕망 등에서) 멀리 떠남에 의해서 생겨난 기쁨[pīti 喜]과 행복[sukha 樂]이 있다.<sup>40)</sup>

그리고 첫 번째 마음집중(初禪)에는 다섯 가지 덮개[五蓋]가 끊어지고, 다섯 가지 구성요소[五禪支]가 갖추어진다. 다섯 가지 덮개란 (1)감각적 욕망에의 희구[kāmacchanda], (2)악의[惡意, byāpāda], (3)혼침과 졸음[thīna-middha], (4)들뜸과 회한[uddhacca-kukkucca], (5) 회의적인 의심[vicikicchā]이다. 다섯 가지 구성요소는 (1)향하는 생각[尋, vitakka], (2)머무는 생각[伺, vicāra], (3)기쁨[喜, pīti], (4)행복감[樂, sukha], (5)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心一境性, cittakaggatā]이다.<sup>41)</sup>

제 2선에서는 향하는 생각[尋]과 머무는 생각[伺]이 가라앉고 마음의 정결함[sampasādana]과 전일성이 있는, 머무는 생각이 없고[無尋] 향하는 생각도 없는[無伺], 마음집중[samādhi]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감이 있다. 제 3선에서는 기쁨을 버리고, 평온[捨, upekkhā]에 머문다. 마음챙김[正念, sato]과

38) AN i, 133쪽, ii, 118쪽, iii, 164쪽, iv, 423쪽, v, 8쪽, 110쪽, 319쪽ff; 354쪽ff; MN i, 136-137쪽, 167쪽, 436쪽; SN i, 136쪽, iii, 133쪽, v, 226쪽; It 61쪽.

39) cittassa ekaggatā ayam samādhi MN i, 301쪽.13행.

40) 『大念處經』 DN ii, 313쪽.

41) 『有明大經』 MN i, 294쪽.



분명한 앎[正知, *sampajāno*]을 지니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면서, 성자들이 ‘평온함과 마음챙김을 지니고 행복감에 머문다’고 한다. 제 4선은 행복[樂]을 떠나고 괴로움[苦]도 떠나고,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없애버린, 불고불락(不苦不樂)인, 그리고 평온(捨)에 의한 마음챙김의 청정함이 있는 (또는, 평온과 마음챙김이 청정하게 된, 捨念清淨, *upekkhā-sati-pārisuddhi*) 제4선(第四禪)이라고 하며, 이 사선이 바른 마음집중[正定]이라고 한다.<sup>42)</sup>

### III. 『청정도론』의 정(定)

戒·定·慧라고 하는 수행도를 淸淨(=涅槃)에 이르는 길[magga 道]로서 제시하고 있는 『청정도론』에서, 定(*jhāna*) 또는 三昧(*samādhi*)<sup>43)</sup>에 관한 이해는, 智(*nāṇa*) 또는 慧(*paññ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지혜의 직접적인 원인(*paccupatthāna* 足處)이 定이라고 하는 점<sup>44)</sup>, 그래서 慧의 직접적 원인인 定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지혜를 해명하기 위해서도, 더 나아가 定과 慧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먼저 고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청정도론』을 중심으로 한 상좌불교의 선정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본다. 특히 安止定·近行定 등의 개념과 안지정인 색계 4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청정도론』에서 말하는 선정론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42) 『大念處經』 DN ii, 313쪽.

43) 남방상좌불교 전통에서는 기본적으로 定(*jhāna* 禪, 禪定, 靜慮, 禪那), 三昧(*samādhi* 等持, 三摩地), 止(*samatha* 奢摩他), 心一境性(*cittass’ ekaggatā*, or *cittakaggatā*)은 동의어로서 사용한다. 水野弘元[1964] 414-415쪽 참조.

44) 마음이 집중된 사람은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는 말에서 三昧가 그것[慧]의 직접적 원인이다. *samāhito yathābhūtaṃ jānāti passati ti vacanato pana samādhi tassā padaṭṭhānaṃ.. Vism 438쪽.*

## 1. 定이란 무엇인가?

『청정도론』의 삼매의 정의를 고찰해보자. 『청정도론』에서는 定의 해석이 시작되는 第3章의 修行方法(業處) 파악의 해석(kammattānagahana-niddeśa)의 서두와 第14章 蘊의 解釋(khandha-niddeśa) 가운데 行蘊을 설명하는 部分에서 三昧에 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第3章의 修行方法(業處) 파악의 해석에서는 定에 대한 여덟 가지 질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질문에서 『청정도론』에서 말하는 定, 또는 三昧의 의미를 알 수 있다.

三昧란 무엇인가. 좋은 心—境性(kusalacittakaggatā)이 三昧이다.

어떤 의미에 의해서 삼매인가? 고르게 유지된다[等持]는 의미에 의해서 삼매이다. 어떤 것이 고르게 유지된다고 불리는 것인가.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마음과 마음작용[心所]이 고르게 그리고 바르게 유지되고 머무는 것을 말한다. 그 때 문에 어떤 법의 힘에 의해서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마음과 마음작용이 고르게 그리고 바르게, 산란함 없이 그리고 혼란함 없이 머문다. 이것을 고르게 유지됨(samādhāna)이라고 알아야 한다.<sup>45)</sup>

그리고 第14章 온(蘊)의 해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대상에 대하여 마음을 고르게 유지하기 때문에, 또는 바르게 유지하기 때문에, 또는 마음을 고르게 유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삼매이다. 그것은 흩어지지 않음을 특징으로, 또는 산란하지 않음을 특징으로 한다. 함께 생겨나는 것(心과 心所)을 통일하는 것을 작용[味 rasa]으로 한다. 마치 가루가 물(을 뭉치게 하는 것)

45) ko samādhi. kusalacittakaggatā samādhi. ken' atthena samādhi ti. samādhānaṭṭhena samādhi. kiṃ idaṃ samādhānaṃ nāma. ekārammaṇe cittacetasikānaṃ samaṃ sammā ca ādhanam ṭhapanan ti vuttaṃ hoti. tasmā yassa dhammassānubhāvena ekārammaṇe cittacetasikā samaṃ sammā ca avikkhipamāṇā avippakiṇṇā ca hutvā tittṭhanti, idaṃ samādhānaṃ ti vedittabbaṃ.. Vism 84-85쪽.

처럼. 고요함을 나타내는 모습[現狀]으로 하고, 특히 즐거움을 직접적 원인으로 한다. (삼매는) 바람이 없는 곳에 등불이 멈추어 있는 것처럼, 마음이 멈추어 있는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sup>46)</sup>

이처럼 삼매란 좋은 상태(*kusala*, 善)로, 마음이나 마음작용이 한 대상에 집중되어 산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고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 2. 四禪 · 安止定 · 近行定

『청정도론』에서는, 삼매에 관한 정의를 제시한 후, 삼매의 종류를 들어서 설명한다. 그 가운데, 二種의 分類法의 한 가지로 安止定과 近行定이 제시된다. 이 두 가지의 定은 초기경전에서 보이지 않으며, 『청정도론』을 위시한 팔리 주석문헌에서 처음 제시되고 있는 용어이다.

「六隨念處, 死念, 寂止隨念, 食厭想, 四界差別에 의해서 얻어진 心一境性和 安止定の 前段階의 一境性, 이것이 近行三昧이다. 初禪의 준비단계는 無間緣으로서 初禪의 緣이라는 등의 이야기<sup>47)</sup>에서 준비단계의 無間の 一境性, 이것이 安止定이다.»<sup>48)</sup>

「近行과 安止에의 導入으로 부터」라고 하는 것은, [40가지 수행주제 가운데]

46) ārammaṇe cittaṃ samaṃ ādhiyati, sammā vā ādhiyati, samādhānamattaṃ eva vā etaṃ cittaṃ ti samādhi. so avisāralakkhaṇo, avikkhepalakkhaṇo vā, sahaajātānaṃ sampiṇḍanaraso, nahāniya-curāṇānaṃ udakaṃ viya, upasamappacupaṭṭhāno, visesato sukhapadaṭṭhāno, nivāte dīpacchīnam t̥hiti viya cetaso t̥hiti ti datt̥habbo..Vism 464쪽.

47) 初禪의 준비단계는 無間緣으로서 初禪의 조건이라는 등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Vism 137-138, 水野弘元[1964] 924쪽 참조.

48) channaṃ anussatiṭṭhānānaṃ maraṇasatiyā upasamānussatiyā, āhāre paṭikūlasaṅgāyā catudhātuvavattānassa ti imesaṃ vasena laddhacittekaggatā, yā ca appanā-samādhinaṃ pubbabhāge ekaggatā:- ayaṃ upacārasamādhi. paṭhamassa jhānassa parikkammaṃ paṭhamassa jhānassa anantarapaccayena paccayo ti ādi-vacanato pana yā parikkammānantarā ekaggatā:- ayaṃ appanā-samādhi ti. Vism 85쪽.

身至念과 入出息念을 제외한 八隨念 및 食厭想과 四界差別이라는 열 가지 수행 주제는 近行에 이끌어 준다. 그 이외는 安止에 [이끌어 주는 것이다].<sup>49)</sup>

「近行과 安止에의 導入으로 부터」라고 하는 것은, [40가지 수행주제 가운데] 身至念과 入出息念을 제외한 八隨念 및 食厭想과 四界差別이라는 열 가지 수행 주제는 近行에 이끌어 준다. 그 이외는 安止에 [이끌어 주는 것이다].<sup>50)</sup>

위의 설명은 선정을 얻기 위한 40가지 수행주제가 近行定과 安止定 가운데 어떤 선정을 가능하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십수념 가운데에서는 身至念과 入出息念에 의해서만 안지정에 도달할 수 있고, 다른 八隨念에 의해서는 近行定 밖에 얻을 수 없다. 또한 食厭想과 四界差別에 의해서도 近行定 밖에 얻을 수 없다.

近行定과 安止定에 관해 좀 더 살펴보자.

2 종류의 삼매가 있다. 근행정과 안지정이다. 두 가지 양태에서 마음이 고르게 유지된다. 近行의 경지 또는 獲得된 경지에서, 그 가운데 近行地에서는 여러 덮개(五蓋)의 捨斷에 의해서 마음이 고르게 유지된다. [定에의 도달에 입각해 있는] 獲得地에서는 [禪定の] 支分이 나타남에 의해서 [마음이 고르게 유지된다.]<sup>51)</sup>

49) upacārappanāvahato ti t̥hapetvā kāyagatāsatiñ ca ānāpānassatiñ ca avasesā aṭṭha anussatiyo, āhāre paṭikūlasaññā, catudhātuvavatthānan ti imān' eva h' ettha dasa kammaṭṭhānāni upacārāvahāni; sesāni appanāvahāni. Vism 111쪽.

50) upacārappanāvahato ti t̥hapetvā kāyagatāsatiñ ca ānāpānassatiñ ca avasesā aṭṭha anussatiyo, āhāre paṭikūlasaññā, catudhātuvavatthānan ti imān' eva h' ettha dasa kammaṭṭhānāni upacārāvahāni; sesāni appanāvahāni. Vism 111쪽.

51) duvidho hi samādhi: upacārasamādhi ca appanāsamādhi ca. dvīhākārehi cittaṃ samādhiyati: upacārabhūmiyaṃ vā paṭilābhabhūmiyaṃ vā. tatha upacārabhūmiyaṃ nīvaraṇappahānena cittaṃ samāhitaṃ hoti, paṭilābhabhūmiyaṃ [jhānassa adhiḡamāvattāyaṃ] aṅgapātubhāvena [cittaṃ samāhitaṃ hoti] Vism 126쪽, [ ]는 Vism-mhṭ의 주석. Vism-mhṭ 332-333쪽.

이 설명은 마음을 고르게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근행정과 안지정의 두 가지 선정에 대한 언급이다. 근행정은 안지정보다 불안정한 상태지만, 마음을 고르게 유지시키는 선정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근행정과 안지정 어느 것에 의해서도 마음은 고르게 유지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近行地에서는 五蓋의 捨斷에 의해서 마음이 고르게 유지된다.」라고 말하는 곳에서, 「五蓋의 捨斷에 의해 마음이 고르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구절은, 순관(純觀) 수행<sup>52)</sup>과 깊은 관계가 있다. 마음을 고르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안지정을 얻든지, 근행정을 얻으면 된다. 그래서 근행정에서 마음이 고르게 유지되는 이유의 측면에서 보면, 오개가 끊어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만일 안지정이라든가 근행정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오개를 끊을 수 있다면 마음은 고르게 유지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순관(純觀) 수행(suddhavipassanā-bhāvanā)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찰나정에 의해서도 오개가 끊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된다.<sup>53)</sup>

근행정과 안지정에 의해서 五蓋가 가라앉고 번뇌의 작용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은 이 2 가지 선정의 상태에서 마음이 고르게 유지되기 때문이다.<sup>54)</sup>

근행정과 안지정의 차이는 집중상태의 강약에 있다. 근행정에서도 선정의 구성요소(초선의 경우는 尋·伺·喜·樂·心—境性)는 존재하지만,<sup>55)</sup> 그 구성요소는 안지정에서 더욱 강해진다. 다음 설명에 의하면 안지정이 생길

52) 순관 수행에 대해서는 김 재성 [2002] 「순관(純觀, *suddha-vipassanā*)에 대하여」 『불교학연구』 4, 불교학연구회, 255-282쪽. 참조.

53) 근행정 가운데 찰나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음은 金宰晟[1995], 「『清淨道論』における剎那定と近行定—*Samathayāna*と*Vipassanāyāna*の接點—」 참조.

54) *uppannakālatō ca pan' assa paṭṭhāya nivarāṇāni vikkhambhitā neva honti, kilesā sannisinā va, upacārasamadhinā cittaṃ samāhitaṃ evā ti. Vism 126쪽.*

55) *etāni ca pañcarīgāni, kiñcāpi upacāraḅkhaṇe pi atthi. Vism 147쪽.*

때, 존재지속심[有分心]<sup>56)</sup>에 떨어지는 것을 끊는다면, 그 안지정의 상태가 하루 동안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근행정에서는 선의 구성요소[禪支]가 강하지 않다. 구성요소가 힘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기가 일어나 서 있으려고 하여도 다시 땅에 넘어지는 것처럼, 근행이 생겼을 때에는 마음은 때로는 [선정의 대상인] 모습[nimitta]을 대상으로 하고, 때로는 존재지속심에 떨어진다. 하지만 안지정에서는 구성요소가 강해진다. 그것들이 힘을 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힘 있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루 종일 서있는 것처럼, 안지정이 일어났을 때, 일단 존재지속심을 끊으면 밤새도록, 하루 종일 지속하고 선의 速行(kusalajavana)의 연속[相續]에 의해서 작용한다.<sup>57)</sup>

### 3. 4선정과 수행 주제

그러면 어떤 수행 주제에 의해서 어떤 상태의 선정을 얻을 수 있는가? 修

56) 존재지속심[有分心]은 남방불교에서 말하는 無意識에 가까운 마음 상태를 가리킨다. 팔리문헌에서 이 개념이 처음으로 나오는 곳은 『發越論』 paṭṭhāna이라는 논서이다. 마음은 無意識狀態에서는 표면적인 작용을 하지 않고, 과거업에 의한 결과의 식[異熟識]으로서의 존속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 결과의식이 존재지속심이며, 이것은 중생이 생을 잇는[結生] 다음 순간부터 시작하여, 표면적인 의식작용이 활동하지 않는 한, 존재지속심으로서 강물의 흐름처럼 生滅하며 연속된다. 존재지속심과 唯識의 ālaya識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水野弘元[1964] 853-855쪽과 Cousins[1981] 'The paṭṭhāna and the Development of the Theravādin Abhidhamma', *JPTS*, 10, 22-46쪽 참조.

57) upacāre añḅāni na thāmajātāni honti, añḅānaṃ athāmajātattā. yathā nāma daharo kumārako ukkhipitvā ṭhāpiyamāno punappunaṃ bhūmiyaṃ patati, evaṃ eva upacāre uppanne cittaṃ kālena nimittaṃ ārammaṇaṃ karoti, kālena bhavaṅgaṃ otarati. appanāya pana añḅāni thāmajātāni honti, tesāṃ thāmajātattā. yathā nāma balavā puriso āsanā vuṭṭhāya divasaṃ pi tiṭṭheyya, evaṃ eva appanāsamādhimhi uppanne cittaṃ, sakiṃ bhavaṅgavāraṃ chinditvā, kevalaṃ pi rattiṃ kevalaṃ pi divasaṃ tiṭṭhati, kusalajavanapaṭipāṭivasen' eva pavattati ti. *Vism* 126쪽.

行 주제의 安止定の 관계는 다음과 같다.

禪의 구분으로 부터란, [40 가지 수행주제에서] 安止[定]에 이끌어 주는 [30 가지] 수행주제 가운데, 入出息念과 十遍은 [初禪에서 四禪까지의 色界四禪에 속하고, 身至念과 十不淨은 初禪에 속하며, 처음의[慈·悲·喜]三梵住는 [初禪에서 三禪까지의] 三種禪에 속하고, 제4의[捨梵住와 四無色<sup>58)</sup>]은 第四禪에 속한다.<sup>59)</sup>

禪定の 단계	수행 주제
欲界定 [근행정]	- 八隨念(仏·法·僧·戒·捨·天·死·寂止隨念)· 食厭想·界差別
初禪定	- 身至念·十不淨
初禪定	— 慈·悲·喜의 三梵住
第二禪定	
第三禪定	
初禪定	— 入出息念·十遍
第二禪定	
第三禪定	
第四禪定	
第四禪定	- 捨梵住
四無色界定	- 四無色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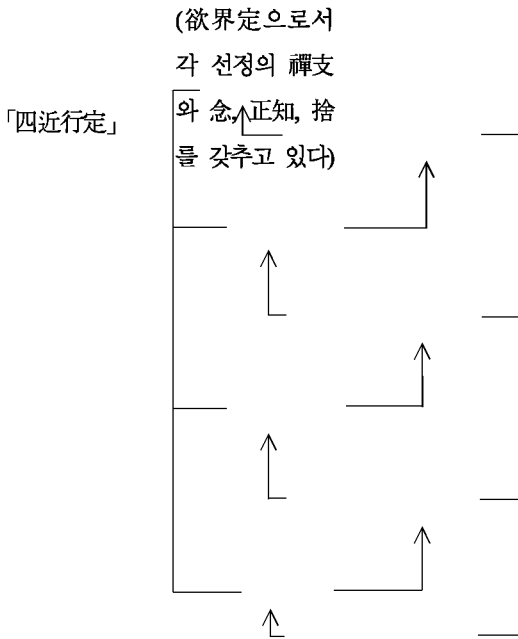
각 선정의 상태에서 끊어지는 법과 갖추어지는 법은 다음과 같다.

58) 四無色이 第四禪에 속하는 것은 예컨대 四色定에서부터 非想非非想定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더 뛰어난 상태가 되지만, 四無色の 禪支로서는 捨와 心一境性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Vism 339쪽 참조.

59) jhānappabhedato hi appanāvaheṣu c' ettha ānāpānāsatiyā saddhiṃ dasa kaṣiṇā catukkajjhānikā honti. kāyagatāya satiyā saddhiṃ dasa asubhā paṭhamajjhānikā. purimā tayo brahmavihāra tikajjhānikā. catutthabrahmavihāro cattāro ca āruppā catutthajjhānikā ti. Vism 111쪽.

1. 初禪의 5捨斷支 : 五蓋(貪欲 · 瞋恚 · 惛沈睡眠 · 掉舉惡作 · 疑)  
 初禪의 5支 : 尋(vitakka) · 伺(vicāra) · 喜(pīti) · 樂(sukha) ·  
 心一境性(cittakaggata) [Vism 141-147쪽]
2. 第二禪의 2捨斷支 : 尋 · 伺  
 第二禪의 3支 : 喜 · 樂 · 心一境性 [Vism 155-158쪽]
3. 第三禪의 1捨斷支 : 喜  
 第三禪의 2支 : 樂 · 心一境性 [Vism 158-164쪽]
4. 第四禪의 1捨斷支 : 樂  
 第四禪의 2支 : 捨(upekkha) · 心一境性 [Vism 164-168쪽]

이상의 고찰에 의해서 색계 4선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第四禪]

[四禪의 近行定]

[第三禪]

[三禪의 近行定]

[第二禪]

[二禪의 近行定]

[初禪]

[初禪의 近行定]

「四安止定」

(色界定으로 各  
禪支를 갖추고  
있음)

이미 살펴본 것처럼 초선에서 끊어지는 五蓋는, 초선의 근행정에서도 끊어진다. 하지만 第二禪에서 끊어지는 尋(vitakka)과 伺(vicāra)는, 第二禪의 近行定에서는 끊어지지 않고 第二禪의 安止定에서만 끊어진다.

초선의 근행의 찰나에 오개가 끊어지는 것처럼, 이 [第二禪의 近行의 찰나에] 尋과 伺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安止의 찰나에서만 이것[第二禪]은 그 것들(尋伺) 없이 생기는 것이다. 때문에, 그것들은 [第二禪에서] 끊어지는 구성요소라고 한다.<sup>60)</sup>

그리고 모든 근행정은 욕계정이며, 각각의 안지정의 구성요소와 念, 正知,

60) yathā ca paṭhamajjhānassa upacārakkhaṇe nīvaraṇāni pahiyanti, na tathā imassa vitakkavicārā. appanākkhaṇe yeva ca pan' etaṃ vinā tehi uppajjati, ten' assa te pahānaṅgan ti vuccanti. Vism 158쪽.

捨를 가진다<sup>61)</sup>. 단지 第三禪의 근행정에서捨(upekkha)가 전면에서 제시되는 점이 눈에 띈다.<sup>62)</sup> 실제로는 제4선의 구성요소인捨는 초선과 제2선과 제3선에서도 이미 나타난다. 하지만 초선과 제2선의捨는 尋·伺(초선의 구성요소) 또는 喜(제2선의 구성요소)에 의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제3선에 들어가 尋·伺·喜가 없어짐과 동시에捨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반문자가] 말한다. 이것은 의미에서 보면 중간의捨일뿐이 아닌가? 또한 그것[중간의捨]은 초선과 제2선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초선과 제2선]에도捨를 지니고 머문다고, 이와 같이 말했어야 했는데 왜 그것을 말하지 않았는가? [답하여 말한다] [그] 작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그곳[초선과 제2선]에서는 그것[捨의] 작용은 尋等[尋·伺·喜]에 정복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이것[第三禪]은 尋·伺·喜에 의해 征服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나타나지 않는 정맥과 같이, 그 작용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 때문에 [그렇게] 말해진 것이다.<sup>63)</sup>

그렇지만 제3선에서 나타난捨는 樂에 의해 정복되어 있기 때문에 念과 正知와 함께 부수적인 구성요소로서만 작용할 뿐이다. 이 세 가지가 제외된 제3선의 구성요소로서는 樂과 心一境性的의 2 가지만이 제시되는 것이다.<sup>64)</sup>

61) 初禪의 近行定(Vism 147쪽), 第二禪의 近行定(155쪽), 第三禪의 近行定(158-159쪽), 第四禪의 近行定(164쪽).

62) Vism 159-162쪽.

63) *etth' āha: nanu cāyaṃ atthato tatramajjhātupekkhā va hoti, sā ca paṭhamadutiyañjānesu pi atthi, tasmā tatrā pi upekkhako ca viharati ti evaṃ ayaṃ vattabbā siyā, sā kasmā na vuttā ti. aparivyattakiccato. aparivyattaṃ hi tassā tattha kiccaṃ vitakkādhi abhibhūtattā. idha panāyaṃ vitakkavicārapīṭhi anabhibhūtattā, ukkhittasirā viya hutvā, parivyattakiccā jātā, tasmā vuttā ti.* Vism 162쪽.

64) *sukhaṃ cittaekaggatā ti imesaṃ pana dvinnāṃ uppattivasena duvaṅgasamannāgatatā veditabbā. tasmā yaṃ vibhaṅge: jhānaṃ ti upekkhā sati sampajaññaṃ sukhaṃ cittass' ekaggatā ti vuttaṃ, taṃ saparikkhāraṃ jhānaṃ dassetuṃ pariyāyena vuttaṃ.*

또한 樂과 心—境性의 이 2 가지가 생기는 것에 의해 [제3선은]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갖춘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그 때문에 『分別論』에 ‘[제3선에는]捨와 念과 正知와 樂과 心—境性이 있다.’(Vibh 260쪽)라고 말해진 것은 부수[의 구성 요소]를 포함한 禪을 보여주기 위해 경전에 의해서(pariyāyena) 말해진 것이다. 그러나 논서에 의해서(nippaiyāyena) 禪의 특징에 이르는 구성요소를 세면捨와 念과 正知는 제외되고 두 구성요소만이 있다. 그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것이 그 때[제3선]의 두 가지 구성요소 인가? 樂과 心—境性이다.’(Vibh 264쪽)

결국 초선의 근행정에서 제3선의 안지정까지 선정의 향상에 언제나 동반되는 마음작용(心所)으로서 念과 正知와 捨가 있지만, 이 세 가지는 제4선의 근행정에 이르기까지는 樂·苦·喜·憂 등의 심리상태에 의해서 정복되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제4선의 근행정의 찰나에서 처음으로, 樂·苦·喜·憂 등의 심리적상태가 끊어져 완전하게 소멸한다. 제4선에 대한 다음의 설명을 보자.

이 사람은 행복[樂]을 끊는 것에 의해 또한 괴로움[苦]을 끊는 것에 의해, 더욱이 기쁨[喜]과 근심[憂]을 소멸함에 의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不苦不樂] 평정[捨]에 의해 마음챙김[念]이 완전히 청정해진[捨念淸淨] 제4선을 갖추고 더 문다.<sup>65)</sup>

樂·苦·喜·憂 등의 끊어짐에 의해 不苦不樂의 마음의 해탈(心解脫)이 얻어지기 때문에 樂·苦·喜·憂 등의 끊어짐은 不苦不樂의 心解脫의 條

---

ṭhapetvā pana upekkhā-sati-sampajaññāni nippariyāyena upanijjhānalakkhaṇappattānaṃ aṅgānaṃ vasena duvaṅgikaṃ ev’ etaṃ hoti. yath’ āha: katamaṃ tasmim̐ samaye duvaṅgikaṃ jhānaṃ hoti ? sukhaṃ cittass’ ekaggatā ti. Vism 164쪽.

65) esa sukhassa ca pahānā dukkhassa ca pahānā pubb’ eva somamassadomanassānaṃ atthaṅgamā adukkhamasukhaṃ upekkhā-satipārisuddhiṃ catutthaṃ jhānaṃ upasampajja viharati. Vism 165쪽.

件이 된다.<sup>66)</sup> 第四禪は, 不苦不樂の心解脫 또는 不苦不樂의 心解脫定 (adukkhāmasukhāya cetovimuttiyā samāpattiyā)으로서 평정(捨)에 의해 마음 챙김(念)이 완전히 청정해진(捨念淸淨) 선정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樂·苦·喜·憂 등의 심리적상태가 끊어져 극복되었어도, 탐욕과 성냄(貪瞋)이라는 번뇌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樂·苦·喜·憂 등의 심리상태와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번뇌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는 조건이 파괴되는 것에 의해, 이것 [제4선]에서는 탐욕과 성냄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것들 [樂·苦·喜·憂 등]이 말해졌음을 알아야 한다. 이 가운데 樂은 喜의 조건이고, 喜는 탐욕의 조건이다. 喜는 근심(憂)의 조건이고, 근심(憂)은 성냄의 조건이다. 그리고 樂 등이 파괴되는 것에 의해 그 [제4선]에서는 조건과 동반된 貪瞋도 파괴되기 때문에 [貪瞋은] 아주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sup>67)</sup>

색계 4선정의 최고 제4선의 구성요소로서捨와 心—境性이 제시된다. 그리고 초선의 근행정에서 제3선의 안지정까지 선정 수행에서 언제나 동반되고 있는 念과 正知와捨가 제4선의 근행정에서 분명해져서 평정 [捨]에 의해 念이 완전히 청정해진 (upekkhāsatiṭṭhāya 捨念淸淨) 상태인 제4선이 성립하는 사실은 선정 수행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다 생각된다. 제 4선에 도달했을 때 선정 수행의 기반으로 사용된 念이 아주 청정해진 결과에 이르는 것이 분명해졌다.

66) adukkhāmasukhāya cetovimuttiyā paccayadassanathāñ cā pi etā vuttā ti veditabbā. sukhadukkhappahānādayo hi tassā paccayā. Vism 167쪽.

67) paccayaghātena vā ettha rāgadosānaṃ atidūrabhāvaṃ dassetuṃ p' etā vuttā ti veditabbā. etāsu hi sukhaṃ somanassassa paccayo, somanassaṃ rāgassa, dukkhaṃ domanassassa paccayo, domanassaṃ dosassa. sukhādighātena ca assa sappaccayā rāgadosā hatā ti atidūre honti ti. Vism 167쪽.

여기에서 **念**이라는 수행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선은 간단하게 말하면 **捨**에 의해 정화된 **念**에 의해, **心**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선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捨**는 **念**을 淨化하는 **捨**이며, 淨化된 **念**이 **觀(vipassanā)** 수행을 위해서 사용되면, 이른바 선정을 먼저 닦고 나서 **觀** 수행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 이러한 수행자를 止行者(samathayānika)라고 한다.

#### 4. 삼매 수행의 공덕

삼매 즉 禪定 수행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 또는 공덕(anisaṃsa)을 보면 선정 수행과 지혜 수행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청정도론』에서는 삼매 수행에 (1) 現法樂住 *ditṭhadhammasukhavihāra*, (2) 觀 *vipassanā*, (3) 神通 *abhiññā*, (4) 뛰어난 存在樣式 *bhavavisesa*, (5) 滅盡定 *nirodhasamāpatti*의 5 가지 공덕이 있다고 한다.<sup>68)</sup>

이 5 가지 공덕에 대해서 『청정도론』에 따라 간단하게 정리해본다. 먼저, 現法樂住 *ditṭhadhammasukhavihāra*란 모든 번뇌를 소멸한 漏盡(*khīṇasavā*)의 아라한이 안지정에 들어가 즐기는 三昧이다.<sup>69)</sup> 有學과 凡夫가 안지정 또는 근행정을 觀의 직접적인 原因(足處; *padatṭhāna*)으로 할 때, 삼매에 의해 觀이 얻어진다. 八等至(*aṭṭhasamāpatti*)로부터 神通이 얻어지기 때문에, 안지정 수행은 神通의 직접원인(*padatṭhāna*)이 된다. 근행정에 의해서 欲界善處(인간 이상의 존재)에 태어나고, 안지정에 의해서는 色界善處에 태어나기 때문에 뛰어난 존재양식(*bhavavisesa*)이라는 공덕이 있는 것이다. 16智行

68) *Vism* 371-372쪽.

69) 水野弘元[1964]196쪽에는 『法集論』(Dhs 123쪽)를 인용하여 阿羅漢이 色界定에 들어가는 것은 現法樂住를 위해서이고 이는 작용만 있는 마음인 唯作心(*kiṛiya-citta*)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唯作心은 阿羅漢만이 일으키는 心作用으로 업의 결과를 형성하지 않는 행위이다. 水野弘元[1964] 793, 936쪽 참조.

(soḷasahi nāṇacariya)과 9삼매행(nava samādhicariya)<sup>70</sup>에 의해서 자재를 얻는 慧가 滅盡定の 智(nirodhasamāpattiya nāṇa)이다. 즉 멸진정은 근행정과 안지정에 의해 제8等至인 非想非非想處定을 얻고 나서 그곳에서 出定하여 觀智를 통해서 얻는다.

삼매의 공덕에서 지혜를 의미하는 觀은 직접적으로 삼매의 功德으로 되어 있고, 아라한의 自受用三昧인 現法樂住와 滅盡定<sup>71</sup>도 觀 없이는 얻을 수 없다. 번뇌를 끊어내는 智慧 없이 삼매의 힘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공덕은 神通과 뛰어난 존재(有, bhava) 정도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더 지적해 둘 점은 삼매 수행의 공덕 가운데 觀은 근행정에 의해서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근행정의 수행에 의해서도 위빠사나의 공덕이 있다. 그래서 세존은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마음이

70) 16智行과 9삼매행에 대해서는 『無碍解道』(Paṭis 99)에 제시되어 있다. 그 가운데 9定行samādhicariya은 다음과 같다. (1)初禪定行, (2)第二禪定行, (3)第三禪定行, (4)第四禪定行, (5)空無邊處定, (6)識無邊處定, (7)無所有處定, (8)非想非非想處定, (9)初禪 등을 獲得하기 위한 [모든 尋(vitakka) ·伺(vicāra) ·喜(pīti) ·樂(sukha) ·心一境性(cittakaggata)인] 近行定 pathamajjhānādinam paṭilabhatthayāsabbattha upacārajjhāna (9번째의 近行定은, Paṭis-a i, 316쪽에 나오며, 『無碍解道』에서는 近行定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지 않았다. 다만 4색계선과 4무색계정을 이루기 위한 尋(vitakka) ·伺(vicāra) ·喜(pīti) ·樂(sukha) ·心一境性(cittakaggata)이 있다고만 제시되어 있다.

71) Griffiths[1981, 609쪽]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We have also looked at what is said about the ultimate aim of such meditative practice; this is saññā-vedayita-nirodha, the complete cessation of all conscious awareness and of all reactions to external stimuli’ 이 문장에 의하면 삼매수행의 최고목적은 滅盡定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근행정과 안지정을 먼저 수행하는 止行者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멸진정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멸진정을 얻기 위해서는 4무색정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불교의 삼매 수행이 8등지를 전제하여 제시되었다고 한정지을 수 없다. 滅盡定の 問題에 대해서는 Griffiths[1986], Schmithausen[1981, 214-239쪽], Bronkhost[1986, 93-104쪽], Vetter[1988, 67-71쪽] 정준영[2004] 「상수멸정(想受滅定)의 성취에 관한 일고찰 - 니까야(Nikāya)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9, 불교학연구회, 239-260쪽. 등 참조

집중되어 있는 비구는 있는 그대로 안다고<sup>72)</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觀수행의 토대가 되는 선정으로 안지정은 물론 근행정도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IV. 『구사론』의 선정론

##### 1. 구사론의 선정론의 구조

구사론을 비롯한 설일체유부의 선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지면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 본 고에서는 남방상좌불교와 대비되는 몇 가지 점만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구사론의 선정론은 제8장 「定(samāpatti)에 대한 해설」에서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제8장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구사론은 samāpatti(等至, 도달)의 범주 안에서 선정(dhyāna)이 다루어지고 있다.

구사론 제8장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덕목(guṇa)의 의지처로서 선정(dhyāna)이 해설된다<sup>73)</sup>. 4선을 시작으로 해서, 4무색(四無色 ārupya), 여덟 가지 도달(八等至 samāpatti), 18 선정의 구성요소, 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도달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덟 가지 근분(近分 sāmantaka), 초선의 근분인 미지(未至 anāgamyā)<sup>74)</sup>, 초선이면서 심(尋)이 없

72) upacārasamādhibhāvanā pi vipassanānisarṣā hoti. ten' āha bhagavā: samādhim, bhikkhave, bhāvettha. samāhito, bhikkhave, bhikkhu yathābhūtaṃ pajānāti ti. Vism 371쪽.

73) 먼저 처음에 [네 가지] 선정이 시작된다. 모든 덕의 의지처이기 때문이다. ādita eva dhyānāny ārabhyante sarvagauṣṭrayatvāt. AKBh 432쪽 3-4행.

74) 처음 [선정]의 근분(近分)은 미지(未至)이다. ādyam sāmantakam anāgamyam AKBh 448쪽 4행.

는 중간정(中間定 *dhyānāntara*)<sup>75)</sup>, 경전에 설해진 삼매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 4선과 4무색이라는 여덟 가지 도달[八等至]이 선정론의 주요 주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삼매를 의지처로 하는 여러 가지의 덕<sup>76)</sup>인 사무량(四無量 *catvāri apramāṇāni*), 팔해탈(八解脫 *aṣṭa vimokṣā*), 팔승처(八勝處 *aṣṭa abhibhāvatanā*), 십편처(十遍處 *daśa kṛtsnāyatana*) 등이 다루어진다.

이러한 두 가지 분류를 통해서 『칭정도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삼매 수행에 대한 접근 방식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들어난다. 먼저 『칭정도론』에서는 삼매 수행의 주제에서 40가지 수행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사무량과 십편처가 『구사론』에서는 삼매의 공덕(*guṇa*)로 분류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구사론』에서 제시하는 선정 수행의 구체적인 주제는 제 6장 「현성품」에서 제시되는 부정관(不淨觀)과 입출식념(入出息念) 두 가지<sup>77)</sup>이다. 이 2가

75) 심(尋)과 결합되지 않은 [첫 번째] 선정이 중간정이다. [prathamam] *dhyānam eva hi vitarkāsaṃprayuktam dhayānāntaram* AKBh 448쪽.10행. [ ]안은 AKVy 682쪽.8행에 의해 추가함. 櫻部 建[2004] 『俱舍論の原典研究：智品・定品』小谷信千代, 本庄良文 共譯, 京都：法藏館, 297쪽 주(3)에 의하면 AKVy와 티베트역에서 구사론 본문에서 선(*dhyāna*)라고만 단어는 초선(*prathamam dhyānam*)이라고 한다. 그 외 한역에 대한 언급도 참조.

76) 이제 삼매를 의지처로 하는 여러 가지 덕을 해설 할 때이므로 [그것들이] 설명된다. *idāniṃ samādhisarṇiśrītanāṃ guṇānāṃ nirdeśakāla itī vyākhyāyante* AKBh 452쪽.3행.

77) ‘그런데 이와 같이 [聖道로 향하는] 근기가 된 그에게는 어떻게 그 수행에의 진입(들어가는 것)이 있는가? 그것(수행)에의 진입은 부정(不淨)과 입출식념에 의한 다.’(*tasya tv evaṃ pāṭribhūtasya katham tasyāṃ bhāvanāyām avatāro bhavati. tatrāvātāro ’subhayā cānāpānasmṛena ca.* AKBh 337쪽.8-9행)

『俱舍論』(玄奘) 由何門故能正入修. 頌曰 入修要二門 不淨觀息念 (『大正藏』 29, 117b4-5), 『俱舍論』(眞諦) 於修中緣何法門, 得入修觀偈曰. 入修由二因, 不淨觀息念.(『大正藏』 29, 269c8-9). 櫻部 建[1996] 『俱舍論の原典解明 - 現聖品』(京都 法藏館, 1996) 76쪽.



지 수행법에 대해서 중국의 『구사론』에 대한 주석문헌<sup>78)</sup>에서는 「현성품」의 7가지 준비단계 수행[七加行]의 첫 번째인 순해탈분(順解脫分)의 삼현(三賢)의 첫 번째로 오정심관<sup>79)</sup>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구사론』 본문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수행 주제는 2 가지임을 알 수 있다. 『구사론』에서는 구체적인 수행 주제에 대한 해설보다는 삼매 수행의 원리적인 측면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수행의 주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 『청정도론』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두 논서는 선정의 분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근본정(根本定)의 구성요소의 차이

『구사론』에서는 말하는 각 근본정의 구성요소는 『청정도론』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청정도론』에서는 초선의 5구성요소로 : 尋(vitakka) · 伺(vicāra) · 喜(pīti) · 樂(sukha) · 心一境性(cittékaggata)을, 제2선의 3구성요소로 喜 · 樂 · 心一境性을, 제3선의 2구성요소로 樂 · 心一境性을, 제4선의 2구성요소로 捨

78) 『俱舍論記』 卷第二十二(普光述) 此下第二明五停位, 七加行中五停心觀也(『大正藏』 41, 339b23-24),

『俱舍論疏』 卷第二十二(法寶撰) 論. 如是已說修所依器. 自下第三明七加行. 文卽有七. 此一行頌. 第一明五停心位. 文中有二. 先總明入修二門. 後別釋二門. 此文初也. 論曰至能正入修. 略說二要門也. 入修要門有多種故. 諸有情類行別衆多故. 入修門亦有多種. 廣卽衆多. 次有五種. 謂多貪不淨. 多瞋慈悲. 多癡緣起. 著我六界. 尋伺持息. 然就多分最略二門. 一不淨觀. 二持息念. (『大正藏』 41, 729c14-21)

79) 『大乘義章』에 의하면 오정심관의 내용은 부정관(不淨觀), 자비관(慈悲觀), 인연관(因緣觀), 계분별관(界分別觀), 안나만나관(安那般那觀)이다.(『大正藏』 44, 693c) 오정심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와 참고 문헌은 김제성[2005] 「오정심관(五停心觀)에 대한 고찰 - 인도불교의 맥락에서 -」 참조

(upekkha) · 心一境性を 들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구사론』의 경우 초선의 구성요소<sup>80)</sup>는 각주7)의 초기경전과 『청정도론』에서와 같으나, 제2선 이후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청정도론』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2선에는 내적인 청정과 喜, 樂, 心一境性を 들고 있으며<sup>81)</sup>, 제3선에는 捨, 念, 正知, 樂, 三昧의 5구성요소<sup>82)</sup>를 제4선에서는 不苦不樂受, 捨清淨, 念清淨, 三昧<sup>83)</sup>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청정도론』에서는 분명하게 4선정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구사론』에서도 각 선정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 3. 근본정(根本定), 근본정(近分定)/ 안지정(安止定), 근행정(近行定)

『구사론』의 선정론 가운데 근본정과 (미지정과 중간정을 포함한) 근본정의 구분은 『청정도론』의 안지정과 근행정과 형식적인 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특히 근본정과 안지정은 기본적으로 4선과 4무색계선을 가리키므로 내용이 같다. 하지만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근본정과 근행정에 대한 이해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정도론』에서 말하는 근행정은 欲界定으로서 각 선정의 구성요소(禪支)와 念, 正知, 捨를 갖추고 있다. 욕계정이라는 표현도 『구사론』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용어이며, 4선의 각 근행정은 각각의 선정의 구성요소에 念, 正知, 捨를 갖추고 있다.

80) vitarko vicāraḥ prītiḥ sukhaṃ cittaikāgratā cety etāni pañcāṅgāni. AKBh 437쪽.20행.

81) dvītye dhyāne catvāryaṅgāni. adhyātmasaṃprasādaḥ prītiḥ sukhaṃ cittekāgratā ca. AKBh 438쪽.2행

82) tṛtīye tu dhyāne pañcāṅgāni.upekṣā smṛtiḥ saṃprajñānaṃ sukhaṃ smādhiś ca.AKBh 438쪽.5행.

83) tatra catvāryaṅgāni. aduḥkhāsukhā vedanā upekṣāparisuddhiḥ smṛtiparisuddhiḥ samādhiś ca AKBh 438쪽.7-8행.

『구사론』의 경우에도 근본정은 근본정에 들어가기 위한 삼매를 말하며 8가지가 있다.<sup>84)</sup> 그 가운데 사선정만이 구성요소가 있고, 무색의 경우는 구성요소가 없다고 한다.<sup>85)</sup> 하지만 『청정도론』 등의 남방상좌불교 전통에 의하면, 무색계정은 색계 제4선과 같이捨와 심일경성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sup>86)</sup> 그리고, 근본정의 경우는 淨과 不苦不樂의捨受만 동반한다.<sup>87)</sup> 『청정도론』의 근행정의 경우는 각 선정의 구성요소와 함께 念, 正知, 捨가 동반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 4. 미지정과 찰나정

『구사론』에서 초선의 근본정인 미지정(未至定, *anāgamyā*)은 정(淨)이고 무루(無漏 = 聖 *āryam*)라고 한다.<sup>88)</sup> 여기에서 미지정의 상태에서도 번뇌에 물들지 않게 됨을 의미하는 말로서 미지정만을 의지하여 첫 번 제 성인인 수타원의 경지를 얻을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阿毘達磨大毘婆沙論』에 “미지정에 의지하여 정성리생(正性離生)에 들어간다.”<sup>89)</sup>는 표현이 자

84) 다시 근본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 이것에는 8 근본이 있다. 하나 하나의 [근본정에] 하나 하나의 [근본이] 있다. 그것 [근본정]에 의해서, 그것[근본정]에 들어감이 있다. *kati punaḥ sāmāntakāni. aṣṭau sāmāntakān eṣāṃ ekaikasayaikaikaṃ yena tat praveśaḥ.* AKBh 447쪽.15-18행.

85) 그리고 이 등지(等至) 가운데 4선정만 [구성요소] 있고, 무색은 없다. *eṣāṃ ca samāpattidravayānāṃ dhyānān eva bhavanti nārūpyāḥ.* AKBh 437쪽.13-14행.

86) 색계의 [제 4선이 평은과 심일경성이라는] 두 가지 구성요소를 가지듯이 무색도 이와 같다. *yath' eva h' etaṃ rūpaṃ duvaṅgikaṃ, evaṃ aruppāni pī ti.* Vism 327쪽. 대립스님 [2004] 『청정도론』 2, 서울: 초기불전연구원. 197쪽 번역 및 주) 114 참조.

87) *suddhakāni ca tān upeksendriyasamprayuktāni* AKBh 448쪽.1행

88) 첫 번째는 성(聖)이다. 첫 번째[禪定]의 근본은 미지(未至)이다. 그것은 정(淨)이고 무루(無漏)이다. *āryam cādyam. ādyam sāmāntakam anāgamyam tac chuddhakaṃ ca anāsravam ca* AKBh 448쪽.4행.

89) 依未至定入正性離生『大正藏』 27, 187b7-8.

주 제시되고 있으며, 『구사론』에서는 이 표현을 미지정은 성(聖)이며 곧 무루(無漏)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미지정이란 초선의 근본정에 도달하지 못한 삼매이다. 이 미지정에 대해서 『阿毘達磨順正理論』과 『阿毘達磨藏顯宗論』에서 다음과 같은 보충설명을 추가하고 있다.

또한 『수시마경』에서 말한다. 근본정을 얻지 않은 혜해탈자가 있다. 비록 근본정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혜해탈을 이루었다. 이것을 증거로 미지정과 중간정이 있다고 알아야 한다.<sup>90)</sup>

중현(衆賢)이 인용하고 있는 『수시마경(蘇使摩契經)』은 설일체유부의 아함인 雜阿含 14, 『須深』<sup>91)</sup>에 해당하는 경전이며, 이 경전에서 초선에서 제4선에 이르는 근본정을 얻지 않고서 혜해탈의 아래한이 된 예가 제시되어 있다.<sup>92)</sup> 이 때의 미지정은 『청정도론』에서 말하는 찰나삼매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무루(無漏)를 오개(五蓋)라는 번뇌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순관(純觀)을 닦는 수행자가 찰나삼매를 의지해서 오개를 극복하고 성인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듯이 미지정에 의지해서 번뇌를 극복하고 성인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좌부와 유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 V. 맺는 말

90)又蘇使摩契經中說, 有慧解脫者不得根本定, 豈不依定成慧解脫, 由此證知有未至定有中間定. 『大正藏』 29,765c9-10, 『大正藏』 29, 970c5-7

91) 『大正藏』 2, 96b25-98a12.

92) 팔리 상응부 그 주석서 그리고 잡아함의 『수시마경』에 대해서는 김제성[2002] 『순관에 대하여』 275-277쪽 참조 각주 56에 한역과 주석서의 해석에 의해서 4선을 닦지 않은 혜해탈 아래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상으로 초기불교의 선정론을 간단하게, 『청정도론』을 중심으로 한 남방상좌불교의 선정론과 『구사론』을 중심으로 한 설일체유부의 선정론과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남방상좌불교 선정론에 대해서는 자세한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상좌부와 설일체유부 등의 부파불교는 초기경전을 각기의 입장에서 해석하면서 독특한 교리와 수행 체계를 정비하였다. 그 결과 서로 다른 해석이 이루어지는 점도 분명히 있지만, 유사한 해석도 보인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고에서 부파불교의 선정론에 보이는 유사성 가운데 주목하고자 했던 점은 상좌부의 근행정 또는 찰나정과 설일체유부의 미지정의 상태에서도 견도(見道)의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부파 모두 초선에 이르지 못한 단계인 근행정과 미지정도 선정의 역할을 담당해서 지혜가 열리는 초석이 됨을 보여주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 <약 어>

Pali Text와 略語는 Critical Pali Dictionary(CPD) Vol.1의 Epilogeomena 참조 기타 약어는 다음 문헌에 따른다.

*Abkürzungsverzeichnis zur buddhistischen Literatur in Indien und Sudostasien*, herausgegeben von Heinz Bechert. Göttingen : Vandenhoeck & Ruprecht, 1990.

Pali 문헌 검색 및 인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Chatta Saṅghayana Tipitaka CD III, Vipassanā Research Institute, Igatpuri, 1998.

『大正藏』：大正新修大藏經.

AKBh - *Abhidharmakośaḥṣya of Vāsubandhu*, Pradhan, P. ed. Patna, 1967.

AKVy - *Sphuṭārthā Abhidharmakośavyākhyā of Yāśomitra*, Wogihara Unrai ed. Tokyo : Sankibo, 1936, 1971, 1989.

(AKBh와 AKVy의 전자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종철교수의 자료를 참고하였음)

Vism - *Visuddhi-magga*, PTS (C. Rhys Davids), Vols. I-II, 1920-21. Reprinted in one vol. 1975.

Vism-mhṭ - *Visuddhimagga-Mahāṭikā* (Paramatthamañjūsā). Chaṭṭhasaṅgāyana ed. Vols. 2, 1960.

## 주제어

남방상좌부 theravāda, 설일체유부 sarvastivāda, 청정도론 Visuddhimagga, 구사론 Abhidharmakośa, 선정 jhāna/dhyāna, 4선정 forth jhāna, 근행정 upacāra-samādhi, 찰나정 khanika-samādhi, 미지정 anāgāmya, 순관 suddha-vipassanā.

## Theory of meditation of two Abhidharma traditions - Compare with *Visuddhimagga* and *Abhidharmakośa* -

Kim, Jae-Sung(Seoul Graduate School of Buddhism)

In this paper, I try to examine the meaning of concentration meditation(jhāna/dhyāna) of early Buddhism and compare the theories of meditation between theravādin and sarvāstivādin. There are many terms which mean the concentration. Those might be samādhi, samāpatti, samatha, yoga, citta, adhicitta, bhāvanā, vimokkha, vimokha, satipaṭṭhāna, anussati, saññā, etc. In these terms, the representative terms of concentration meditation might be jhāna, samādhi, samāpatti, samatha.

There are some characteristics of the theory of meditation of the theravādin in the *Visuddhimagga*. One characteristic is theory of two kind of samādhi, access-concentration(upacāra-samādhi) and absorption concentration(appana-samādhi). Insight meditation(vipassanā) can be practiced on any of these concentration because of overcoming of five hindrances(pañca-nīvaraṇa)

The sarvāstivādin theory of meditation in the *Abhidharmakośa* is different from theravādin in many ways, but some ideas are very similar. In this article, I try to explain that Not-reached state (anāgāmya) of first concentration is functioned like access-concentration of *Visuddhimagga*, and enlightenment is possible based on

these two kind of concentration as well as absorption concentrations. Pure-insight meditation(suddha-vipassanaa) is able to be practiced on the basis of access-concentration or Not-reached state of first concentration.